

COMMUNICATION WITH SPACE

# STAR OF ARA





6개 '달' 시리즈 'STAR OF ARA'는  
한국 콘텐츠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는  
환경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책이며,  
관광 산업에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획이다.



6개 '달' 시리즈는 '토성의 달'을 제외하고  
한국의 주요 문화예술 도시의 지명을 품고 있다.

'달'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으로 예부터 신비롭고 경이로운 대상이었다.

그 위성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행성 주위를 돌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전지적 시선'으로 설정했다.



6개의 지명은

인류의 터전이자 미래의 새로운 '터'를 뜻한다.

STAR OF ARA는 '달' 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산물을 논하고,

현(現) 시대에 직시한 문제적 메시지를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

# Contemporary Art

## <기획 공연>

- 첨성의 달
- 몽촌의 달
- 토성의 달

## <기획 전시>



- 아라의 달
- 고창의 달
- 환선의 달
- 첨성의 달
- 몽촌의 달
- 토성의 달





토성의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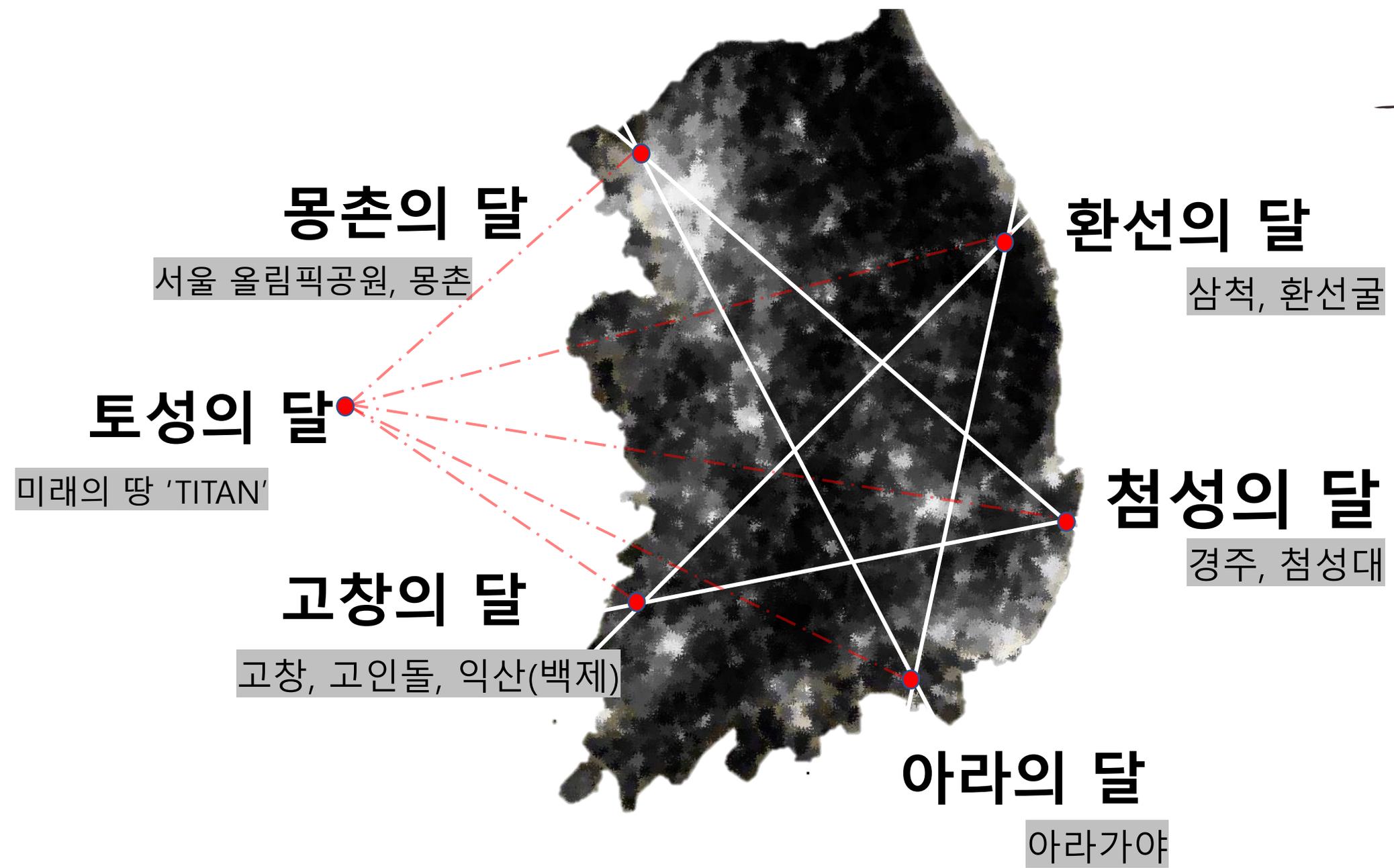
아라의 달

고창의 달

침성의 달

몽촌의 달

환선의 달





# 첨성의 달

# 기획 의도 및 목적

---



## '첨성대' 천년의 고도 '경주'

예부터 하늘의 뜻을 구하고,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고자 한 옛 선조들의 지혜를 이곳 경주에서 찾을 수 있다. '첨성의 달'은 우주와 땅의 기운을 연결했던 첨성대의 신비로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기획 되었다. 천문 +역학+ 과학의 예술 건축물 첨성대를 현대 예술 언어로 재해석해 한국 문화와 국보의 위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 시놉시스

---

무대 중앙 사면을 네 장의 긴 천을 내려 프로젝터와 랩핑 한다.  
이것은 첨성대 내부에서 외부로의 시선,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달빛과 하늘과의 연결 선을 표현하는 것이다. 영상, 조명은 사운드를 만나 큰 줄기의 스토리로 첨성을 새롭게 단장할 것이다.

6개의 달 시리즈 중 '첨성의 달'은 인간이 간직한 내적 갈등, 지구 밖으로의 궁금증, 그리고 천문학적 분별력을 논해 인류가 과거부터 무한 잠재력을 갖고 있었고 계속된 과학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민족의 우월성을 예술의 언어로 함께 녹여낼 것이다.



---

## 기대효과

다양한 시각적 효과, 사운드로 새로운 감동의 콘텐츠를 영상 및 음반으로 제작.  
SNS 및 무료 콘텐츠 유통으로 세계 여러 국가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경주시에 방문하도록 한다.  
또한 경주의 역사와 현대 예술과의 연결성을 통해 한국 현대 문화예술과 한류가  
천년 고도 경주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 프로그램



- 
1. 달빛 아리
  2. 천제 (天祭)의 문
  3. 연꽃 화랑
  4. 성좌 (星座) 지천 (地天)
  5. *Heaven's Horse*
  6. *The FIRST 'M.A.S.O.N.'*

# 몽촌의 달



# 1. 작가의 말



몽촌은 서울의 옛 지명이자 한성백제의 옛 터의 이름이다.  
한반도 수도는 아주 먼 석기시대부터  
인류의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터는 지금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로서  
그리고 인류 발전의 집합적 모습을 갖춘 도시의 모습이다.



빈부의 격차, 환경문제, 범 인류적 오류 뿐만 아니라

인간이 처한 지금의 몽촌은 위태롭기 그지없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몽촌'은 직접적 지명의 명칭이기 이전에

과거와 현재를 이루며 살고 있는 인류의 터를 의미한다.

몽촌을 예부터 공존하며 관찰하고 있는 전지적 시선

'달'이라는 매개체는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음악, 춤, 영상, 조명, 마임 등 예술의 언어로 전달하고자 한다.



## 2.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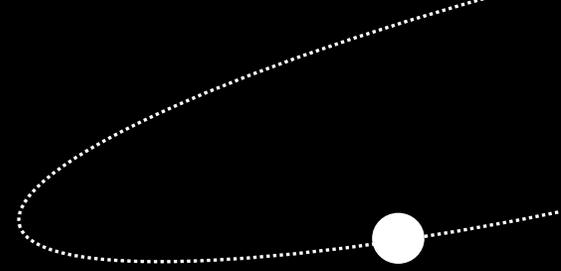


1. 몽환(夢幻)의 Arabesque
2. 군검(君儉)의 터(基)
3. 곰말의 꿈
4. MASK MUNG
5. 돌산의 호수
6. 오륜의 검



# 토성의 달

# 1. 작가의 말



작품 '토성의 달'은 토성 주위를 돌고있는  
'TITAN'이라는 위성을 의미한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은 인류의 가장 큰 관심사일 뿐만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성찰과함께 공존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우는 인간은 '지배' 라는 '종족 합리화'로  
만들어낸 본인들의 이기적 사상 아래 과학발전의 역사동안 무한  
발전을 꿈꾸었고, 이제 그 결과물로 인해 곧 닥쳐올 지구의 멸망을  
예상 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서있게 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태양계에서 물이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은 '지구' 밖에 없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생명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과시했던 지구의 죽음 앞에서  
많은 과학자들은 '미래의 인류'를 위한 새로운 터전을 고민하게 되었다.

인류가 우주에 관심을 갖고 달에 첫 발을 내딛은 지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여러  
과학자들은 인간의 새 터전을 찾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우주의 신비와 탄생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연구로 많은 탐사선을 미지의 세계로 보내고 있다.

'미래 인류'를 위한 사명을 갖고 우주로 떠나는 탐사선은 과학자들의  
눈과 마음이 되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랜 시간 동안 그 긴 여정을 완수 하고 난 후 탐사선의 마지막

'GRAND FINALE' 는 언제나 홀로 쓸쓸히 스스로 맞이하는 예정된 최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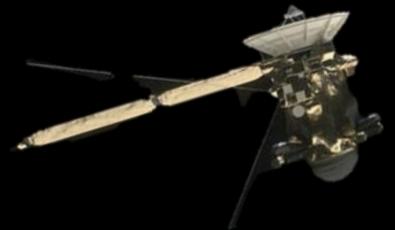
“ 현재 계획대로라면 탐사선 카시니(2004년 토성 궤도 진입, 2017년 토성의  
고리 내부 진입 이후 폐기)는 2017년 9월 15일, 토성의 고리 내부로 진입하여  
토성을 스물두 바퀴 돌고나서 그 대기 속으로 죽음의 하강을 시작할 것이다.

바라건대 카시니의 탐사 임무에 감화된 **음악가**가 다른 행성에서 맞는 최후를  
주제로 아름다운 곡 을 써주시길..”

-스페이스 미션중에서-

탐사선 카시니는 '토성의 달' 타이탄과 엔셀라두스등 여러 위성을 관측했다.  
이후 토성 내부 진입 관찰 후 대기권 밖으로 나와 스스로의 최후를 맞이 하게 된다.  
탐사선 카시니의 행보를 함께 했던 과학 자는 눈물을 흘렸고,  
인간을 위한 그 숭고한 업적에 모두 마음을 다해 애도를 표했다. 또한 마지막 탐사 장소였던  
목성 내부에서 그 최후를 맞이하지 않은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지구에서 물어 갔을지 모를 생명이나 각종 물질들이 '타이탄'이나 '엔셀라두스'처럼 생명이  
존재 할 수 도 있을 위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정된 죽음이다.'***



인간의 기술로 탄생된 탐사선의 숭고함과, 과학자들의  
인륜적 책임과 규범, 그리고 도덕적 이행의 마음은 탐욕과 결핍이 만  
연한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기 충분한 내용이라 생각 된다.  
때문에 작품 '토성 (土星)의 달(月)'은  
현(現) 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와 지구의 문제점을 논하고,  
미래를 위한 그들의 숭고 함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프로그램

1. 제3의 인류

2. 다이아몬드 성 (星) 'ENCELADUS'

3. Planet 'Earth' to Plastic 'Earth'

4. 19971020

5. 생명의 달 'TITAN'

6. The Last 'CASSINI'



아라의 달  
고창의 달  
환선의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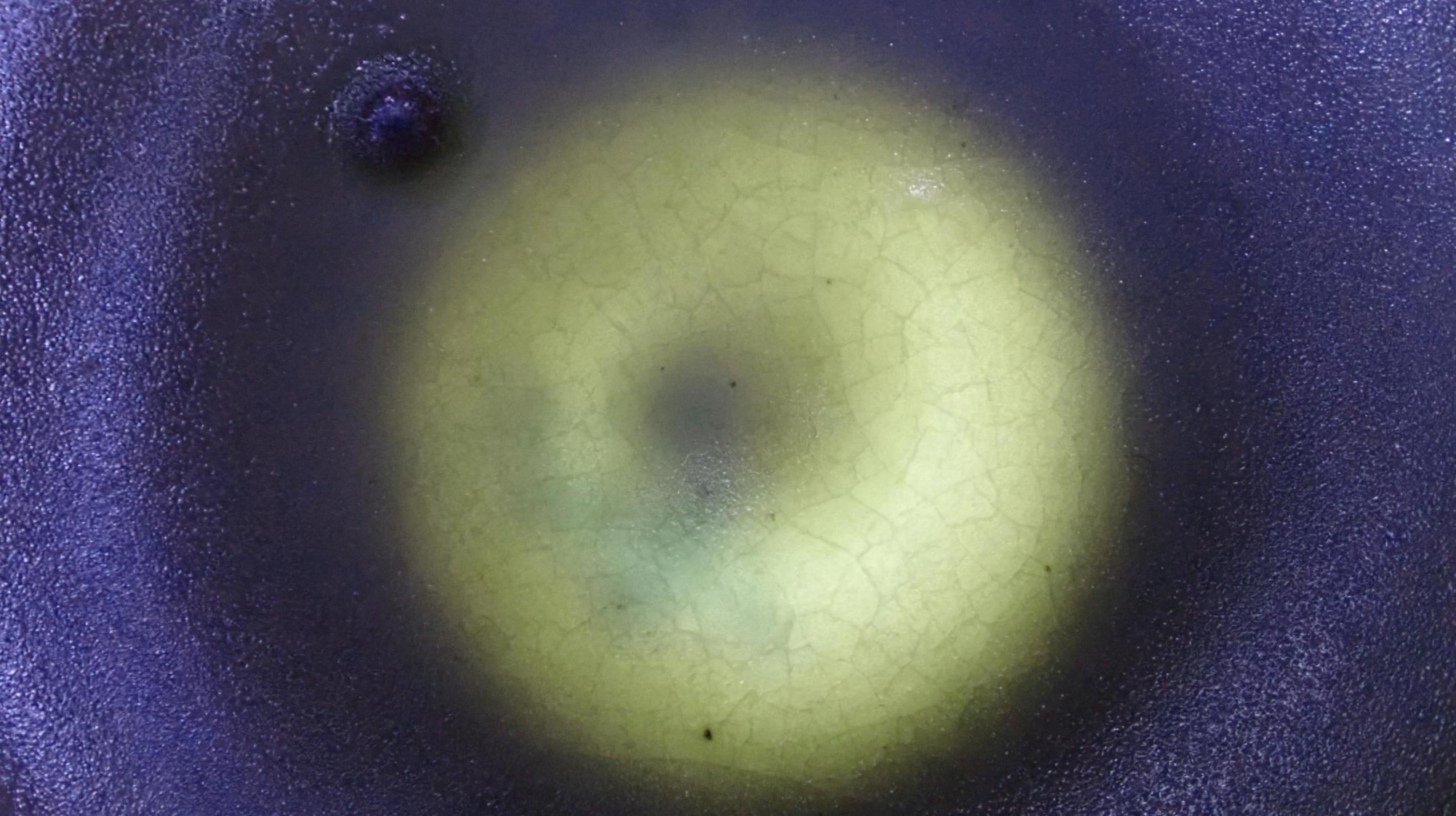


# 프로그램

우주와 땅의 기운이 만 나는 그 순간 찬란한 문명이 탄생하고,  
그 문명의 흔적은 암각화, 토기 등으로 남아 지금 현시대에 전해지고 있다.

하늘에서 한줄기 빛을 내려 빙하기의 얼음을 녹이고 사람은 흙으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다.





A bright, vertical light beam originates from the top center of the frame and extends downwards, creating a strong contrast against the black background. The beam is slightly blurred and has a soft glow around it.

# **Director's Cut 2020**

2012

# Director's Cut

P&I 국제 사진 영상기자재전 감독 전시회

4월 26일(목) - 29(일)  
삼성동 코엑스 B홀

## Director's Cut

## Director's Cut

www.blueswa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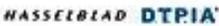
주최&주관



협찬



후원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반영

### 국립춘천박물관



수신 홍장혁 귀하 (우0583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민로 66, 가든파이프 라이프 T-7151 (문정동))

(경유)

제목 소장품 열람 허가

1. 학예연구실-1858(2019. 11. 26.)호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한 우리 관 소장품 열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 가. 목 적 : Ara Korea 캠페인 17회 전시에 활용 예정
  - 나. 허가 소장품 : 공멸토기(춘천15026) 1건 1점
  - 다. 열람 일자 : 2019. 12. 02(월) 14:00
  - 라. 열람 인원 : 신청인 홍장혁 등 3명
  - 마. 허가 조건
    - 열람 시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담당 직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열람된 자료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권리는 국립춘천박물관에 있으며, 허가된 목적 이외의 이용 및 자료의 타인양도 등 2차 복제를 불허합니다.
    - 자료 이용 시 국립춘천박물관 소장품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열람 후 이에 대한 열람결과서 1부, 약정서 1부, 저작권양도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열람결과서, 약정서, 저작권양도계약서 각 1부. 끝.

국립춘천박물관장



주무관 **경화순** 학예연구실장 **김용범** 국립춘천박물관 2019. 11. 28  
관장 **김상배**

협조사

시행 학예연구실-1881 (2019. 11. 29.) 접수

우 24325 강원도 춘천시 무석로 70 국립춘천박물관 / chuncheon.museum.go.kr

전화번호 033-260-1525 팩스번호 033-260-1529 / nete0924@korea.kr / 비공개(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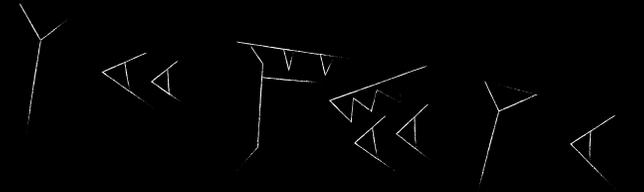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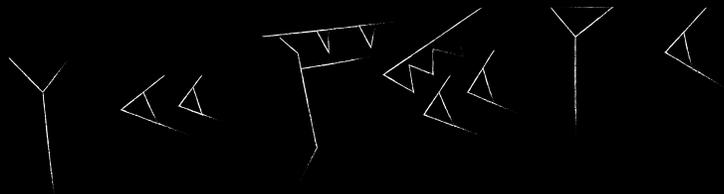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11. 25-27, 부산)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245917&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245917&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 프로그램

'나는 찍는다. 고로 존재한다!'

-중앙일보 사진 전문기자 권혁재-





중앙일보 권혁재 사진 전문기자



중앙일보 권혁재 사진전문기자가 국립춘천박물관에서 토기를 촬영하고 있다.



중앙일보 권혁재 사진전문기자가 강원도 춘천 중도에 작품을 땅에 묻고 있다.



# 프로그램

길었던 빙하기가 빛으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동굴 안에 몸을 숨겼던 인류는  
흙을 밟으며 빗살무늬 토기를 빚어 생활했다.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에서 조선시대의 백자까지의 변천과정을 그냥 일반  
증명사진 같은 기록 사진이 아닌 예술사진으로 촬영하여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새로운 MICE 사업으로 탄생시킨다.

참고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loXaREaUZ0c&t=2011s>

# 프로그램

환선의 달 : 강원도 양양 신석기시대 빗살무늬 토기

몽촌의 달 : 서울 암사동 신석기시대 빗살무늬 토기

첨성의 달 : 경북 경산 소월리 유적 사람얼굴모양 토기

아라의 달 : 경상남도 김해시 아라가야시대 오리 토기

고창의 달 : 전북 고창군 심원면 대죽도 패총 신석기시대 빗살무늬 토기

토성의 달 : 강원도 춘천 중도 신석기시대 중도 유물



## 프로그램



빛살무늬 토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중앙일보 권혁재 사진 전문기자의 시각으로 풀어낸다.

다양한 지역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하며,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많은 국내-외국인들이 관광을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 -주관사 **AK ENM** 소개

AK ENM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할리우드 영화 및 드라마 제작, 음반 사업을 하고 있으며 NGO 단체 AMPKIND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년간 새로운 콘텐츠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해외에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한다.

### 연혁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75908>

<https://news.joins.com/article/23588661>

[www.akenm.com](http://www.akenm.com)

[www.tikoonz.shop](http://www.tikoonz.shop)

### AMPKIND에서 운영하는 ARA KOREA 캠페인

[www.facebook.com/dokdocontest](http://www.facebook.com/dokdocontest)

<https://www.youtube.com/watch?v=loXaREaUZ0c&app=desktop>

### 무대 레퍼런스

<https://www.youtube.com/watch?v=2iUb4l2tFvk>

